

불교 전적 29점 '국보'

대부분 경전...보물도 60% 이상

우리는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먼저 석굴암, 다보탑과 같은 유형의 문화재를 떠올리겠지만 우리의 관심이 미처 닿지 못하는 문화재가 바로 고서, 전적류의 문화재들이다. 이들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지만 우리민족의 얼과 정신을 계승해온 소중한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다.

세계최고의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경> 등 이들 전적류 상당수가 불교문화재이다.

320여점이 넘는 국보 보물지정 전적류 가운데 절반이상이 불교관련서 들이다.

국보지정 전적류 총 48점 가운데 29점이 불교 관련서(표 참조)이고 보물지정 불교관련 전적류도 1백여점 이상이다.

이들 지정문화재 불서는 경전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방광불화엄경류가 40여점이고, 묘법연화경류도 37점이나 된다.

또 <금강반야바라밀경>과 <반야바라밀경> <유가사지론> <사십이장경> 등 다양한 불교경전이 남아 있다. 그 형태에 있어 신라시대에는 짧은 다라니 등의 불경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고려시대에는 국교로 승격된 불교가 호국이념과 결부

돼 대장경 판각 등 불교서적의 제작이 가장 활발하였다. 이에 반해 조선시대에는 송유억불정책의 영향으로 주로 경사(經史) 중심의 책들이 간행되었다.

국보 제196호 <신라백지목서대방광불화엄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경서. 신라 경덕왕 13년(754년) 연기 법사의 발원으로 제작됐으며 당시 사경의 특징과 서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고려 공민왕 22년(1373년)에 목상자에 은으로 쓴 법화경 완집본인 국보 제185호 <상지은니묘법연화경>은 정교한 글씨의 화귀본이다.

전주 덕문사에서 간행된 불경인 보물 제877호 <금강반야바라밀경>은 다른 불서에서는 볼 수 없는 설법도가 이채로운 귀중한 자료다.

이들 경전류 외에 조선 세종대왕이 소현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수양대군 등에게 명하여 제작했다는 보물 제523호 <석보상절>은 석가의 일대기를 한글로 번역한 불교성전이다.

또 중국 당나라의 선승인 영가현각스님의 <선종영가집>(보물 제641호)과 보조국사 지눌의 <목우자수심결 합철법어>(보물제769호), <선림보존 권 상·하>(보물제 700호)등 고승관련 법어집도 다수 전해지고 있다.



◇동국대에 소장돼있는 대방광불화엄경(국보 제212호).

◇불교전적류 국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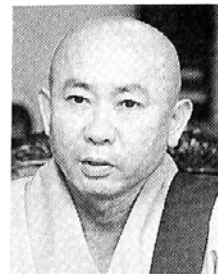
재형번호	이름
185	상지은니묘법연화경
196	신라백지목서대방광불화엄경
202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37
203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6
204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 36
210	감지은니불공견색신변진언경
211	백지목서묘법연화경 권 1~7
212	대불정수능엄경 권 1~10
215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권31
234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1-7
235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
241	대반야바라밀다경 권249
243	현양성교론
244	유가사지론 권17
246	대보적경 권39
251	대승아비달마잡집론
256	대반야바라밀다경 권 제1
257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제29
265	대반야바라밀다경 권 제13
266	대방광불화엄경 권 제2, 75
267	아비달마식신족론 권 제12
268	아미타미파사론 권 제11, 17
269	불설화상근본대락구경불공공예대요경
271	현양성교론 권 제 12
272	유가사지론 권 제 32
273	유가사지론 제 권 15
276	유가사지론 권 제 53
277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 제36
279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 제7(권제)

이은지 기자

나와 경전



아함경



지하
(중앙승가대 총장)

1958년 불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나는 당시 열아홉이었고 그해 4월에 올린 불영사에서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는 기회가 있었다. 이것이 불교와의 첫 만남이었다. 그후 나는 속리산 법주사에 입산하게 되었고 법주사 강원에서 경전을 접하게 되었는데 나의 어린 가슴에 와닿은 경전의 모든 부처님 말씀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경이공부에 점점 환희심을 내게 되었을 때 나는 강원교육을 다 이수치 못한 체 종단의 중비 1기생으로 64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입학하였고 스님학생들의 기숙사인 백상원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동국대에서의 공부는 대승경전 중심의 강원교육과 달랐다. 동국대에서는 구사론 유식학 아함경 등을 먼저 가르쳤다. 이때 <아함경>이 초기불교 근본 불교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경전임을 처음 알게 되었다.

65년 동국역경원에서 한글대장경이 출간되면서 <아함경>은 널리 세상에

고 있다. 우리는 초기불교 부파 불교 대승불교시대를 지나 오늘날 대중불교 민중 불교를 주장하는 적극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오랜 세월속에서도 변함없이 모든 불교경전과 사상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아함경>에 실려진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잡아함 장아함에 보면 나구라 장자에게 부처님께서 마음에 병이 드는 것은 물질에 집착하기 때

문이라고 알려주신다. 이에 대해 사리불이 구체적 설명을 장자에게 다시 해주게 되고, 장자는 부처님과 그 제자인 사리불에게 감사와 존경심을 갖게 돼 목숨이 끝나는 날 까지 삼보에 귀의하겠다고 맹세하게 된다.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중생에게는 큰 복전이 된다는 것을 실례로써 보여주어 주고 있는 것이다.

혼탁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점점 불교의 근본정신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중심을 잃어 버리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한 번쯤은 읽고 새겨봐야 할 경전이 바로

사성제·팔정도 說한 근본불교 핵심 중심읽은 현대인들 꼭 읽었으면...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각종 번역물이나 단행본이 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글대장경 아함부는 우리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아함경>이었다. 그래서 방학동안 공짜 않고 기숙사에 바쳐 앉아 상그러운 숲속 백상원 공기를 마시며 밤을 새워 <아함경>을 읽었다.

<아함경>은 중앙아함, 중일아함, 장아함, 장아함 네가지로 전해지고 있는 방대한 경전이다. 부처님께서 교화하신 시기인 초기불교 시대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집대성된 경전이 바로 <아함경>이다. <아함경>은 근본불교의 중심사상인 사제팔정도 십이인연 등의 교리를 실한다. 이것은 불설(佛說)에 가장 가까운 것이면서 우리 일상생활의 실제적인 교훈이 되는 가르침들이다. 그러므로 <아함경>은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부처님에 가깝고 사상적인 변화도 거의 없으며, 이설의 대립이나 대 소송의 구별도 보이지 않는 구간이 되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아함경>은 불교의 연기사상, 자비정신,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과 더불어 대승의 근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이타의 보살사상등을 총체적으로 설하

<아함경>이라고 생각한다. 근본불교의 모습을 맞출 수 있고, 부처님의 체취를 느낄 수 있으며 삼보의 존귀함을 알려주신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아함경>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근본불교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 당시 불교의 인형을 찾아오는 학문적 의미도 있지만, 현재의 불교가 불교 본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출가수행 위주의 부파불교시대에 대승불교도들이 중생구제를 이야기한 부처님 본래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자면 대승불교의 보살정신을 고양시켰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불교도들이 신비주의나 초월주의에 빠져 바르지 못한 길을 향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에서 불교를 합리적으로 현실적인 근본불교로 되돌려 놓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불기 2541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체취를 느낄 수 있고, 초기불교 근본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아함경>을 읽으며 자신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래 부처의 마음을 다시한번 체험해 보기를 여러 불자들에게 권한다.

“책으로 문화재 여행”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우리 문화유산 바로알기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문화유산 관련서들이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최근 서점마다 문화유산 관련 도서 특설코너까지 생겨나고 있는 이들 문화유산 관련서들은 답사 여행의 안내서 뿐 아니라 대중교양서로도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우리 문화유산의 전통과 역사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불교문화 관련 책

서점마다 특설코너 '복적'

90년이후 출간 '불'...답사기 인기

들은 90년 이후 출간됨을 이룰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다.

일반인 대상의 인문교양서로 출간된 권영필교수(고려대)의 <실크로드 미술>과 장충식교수(동국대)의 <한국의 불교미술> 문명대교수(동국대)의 <한국불교미술의 형식> <한국불교미술사>등은 불교미술의 역사와 사상적 배경을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관조하는

'97 문화유산의 해

심미안을 키워주는 본격 불교 미술 개론서들이다.

스테디블러스트 자리매김한 대원정사의 <한국의 불교미술>도 11년만에 개정증보판으로 나와 있다. 불교미술의 정의로부터 불교미술 전반을 알기쉽게 소개한 이 책은 전문화의 올바른 이해 단청과 고려불화등 한국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2>를 필두로 한국문화유산답사사의 <답사여행의 길잡이> 시리즈, 유적발굴에 얽힌 이야기를 담은 정재훈씨의 <문화의 산길 돌길>등.

여기에 불교문화와 문화재를 고스란히 지켜오고 있는 전통 사찰관련서도 연이어 출간되고 있다. 최완수씨의 <명찰순례 1,2,3>, 이고은, 박설산씨가 함께 쓴 <명산고찰따라(전4권)>

<한국의 폐사> <한국의 절터> 등이 그것. 일반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한 <그림으로 배우는 우리의 문화유산>, 섬세한 유물과 고미술품을 다루는 실무 지침에서부터 여러 가지 보관방법 등 문화재 다루기를 현장감 있게 소개한 <문화재 다루기>도 흥미롭다.

이밖에 <한국인이 만든 일본 국보>와 <부끄러운 문화답사기> 등도 꼭 한 번 읽어볼 만한 책이다.

'책, 우리의 미래' 서울 국제도서전

15~19일, KOEX

'97 서울국제도서전이 '책,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한국 종합전시장(KOEX) 1층 태평양 전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장립 50주년을 맞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한국 출판 50년의 성장과정과 책의 발전과정을 조명할 '장립 50주년 기념 특별전'과 '멀티미디어 출판 특별전'을 개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출판문화 시대를 창조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다.

청소년 권장도서 35종 간행물윤리위 발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권혁승)가 신록의 계절을 맞아 우리 청소년들이 읽어야 할 권장도서를 발표했다. 일제 잔재의 흔적들을 보여 주는 <부끄러운 문화답사기>를 비롯 일인연씨의 <삼국유사>, 어린이에게 밝은 동심의 세계를 열어줄 환상동화 <푸른 머리의 사나이> 등 11개 분야 35종이다.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혜 타	효 립
2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	에 원	기림기획
3	마음을 다스리는 법	김 정 빈	등 지
4	49세 공덕과 의미	권 집 부	이 바 지
5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6	석가와 크는 아이	연이연연구소	산 하
7	힘든 세상 도나 닦지	효 립	가 서 원
8	부처님은 왜 신을 가르쳤나요	우 화	출은인연
9	그까지 살았으면 어때	화 립	여시아문
10	압자로 가는 길	정 찬 주	출 은 날

구입문의: (02)737-0695

2541 부처님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 부산한마음 선원 신도회 ●

신도회장 이하경 박성빈
부 회 장 채선일 현기섭 서민자
재 무 김원순
총 무 정성용 송경자

● 법형제회 ●

회 장 박 해 일
총 무 백 문 현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 522번지
전 화 : 051-403-7077

2541 부처님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大韓佛敎普門宗 普門寺

住持 黃法俊
副住持 趙妙觀
總務 李法善
教務 金眞雨
財務 吳仁太

▶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3가 168
전화 : 928-3797
926-9752

전국비구니회

회 장 광 우
회원일동

▶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45번지
전화 : 02-733-5467
팩스 : 02-735-6789

동명불원

주 지 영산 덕천
신도일동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7호
(종남동에서 암사동으로 이전함)
전화 : 3427-0108

동산불교대학

학 장 무진장
이사장 김재일

▶ 서울 중로구 견지동 13
전화 : 732-1206-8 · 팩스 : 732-1207

동산반야회

회 장 김재일
사무국장 구분설
기획실장 문준순

한국재가불자연합

공동회장 안 동 일
이 중 구
황 석 동
박 정 애

▶ 서울시중로구 견지동 13번지 웅진갤러리 4층
전화 : 732-1216 · 팩스 : 732-1207